

전후 70년 식민지 지배의 과거와 마주보고,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의논하다.

# 한일 학생 교류 포럼



2월 27일 (금요일) 오후 / 동경대학교야요이 캠퍼스 (예정)

# 자원 봉사자

# 모집!!!

2/25~2/28 기간 동안 한국 학생 약 20 명이 일본 학생들과 '역사의식의 공유는 가능한가'와 '앞으로의 동아시아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'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일본을 방문합니다. 2월 27일에는 일본 학생들과의 토론을 위해 한일 학생 포럼이 개최됩니다. 솔직한 감정과 의문을 털어놓고, 양 국민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.

올해는 전쟁이 끝난 후 70년이 되는 해입니다. 그리고 세계가 일본의 역사적 입장에 주시하고 있습니다. 일본의 많은 학생들이 '험한'이지 않다는 것, 역사를 적시하는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, 많은 학생들이 협력하여 함께 이 포럼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바랍니다. 하루만 참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!

## 참가 방법

아래의 이메일로 대학, 학부, 학과, 학년, 성명, 전화 번호, 참가 동기나 문제의식 (짧게라도 가능합니다)을 적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. 추후에 설명회나 학습회의 안내를 발송하겠습니다.

## 이러한 분들은 꼭 참여바랍니다

-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
- 자신이한국 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
- 도쿄를 안내할 수 있는 사람
- 역사인식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
- 한국인 혹은 일본인이 아닌 사람
- 한국에 갈 의향이 있는 사람

## 2/25-28 에도 모집합니다.

- 2/25: 제일한국인역사자료관 견학, 환영파티
- 2/26: 아스쿠니신사(靖国神社), 류슈칸(遊就館) 견학, 위안부 문제 자료관 방문, 신오쿠보(新大久保)에서 식사
- 2/28: 일본 학생이 안내하는 도쿄

**문의처:**  
pw70project@gmail.com

혹은 후속의 QR 코드의 링크를 통해 이메일 서식 사이트로 가서 의식에 따라 이메일을 전송해 주시길 바랍니다.



**[일본을 방문하는 단체]**  
홍사단: 102년 전,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조선의 청년단체.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창시.

**[일본측의 실행위원회]**  
전후 70년 프로젝트 실행위원회 & 민청 동경대 코마바반, 와세다반, 중앙대반, 외

